

대실혈후 원기대허에 인삼일미

-한의학으로 본 인삼의 효능과 응용(下)-



최호영 · 경희대학교 한의대 교수

(6) 明代

明代에 이르러 補益藥의 이용이 광범위해지고 여러 본초학자는 人蔘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을 하였다. 李時珍의 『本草綱目』에서는 人蔘은 “治男婦一切虛症, 發熱自汗, 眩暈頭痛, 反胃吐食, 滑瀉久痢, 小便頻數, 淋瀝, 勞倦內傷, 中風, 中暑, 瘧瘵, 吐血, 嗽血, 下血, 血淋, 血崩, 胎前產後祭屏”이라 하였다. 繆希雍의 『本草經疏』에서는 “人蔘能回陽氣于垂?, 却虛邪于俄頃. 其主治也, 則補五臟, 蓋臟雖有五, 以言乎生氣之流通則一也, 益真氣, 則五臟皆補矣.”, “真氣內虛, 故腸胃中冷, 氣旺陽回則不冷矣. ……謂中者, 脾治中焦, 脾得補則中自調矣. 消渴者, 津液不足之候也, 氣回則津液生, 津液生則渴自止矣. 通血脈者, 血不自行, 氣壯則行, 故通血脈”이라 하였다. 繆氏는 人蔘에 대하여 다방면의 효능을 歸結하여 益真氣元氣라 하였는데 매우 타당하다. 倪朱謨의 『本草?言』에서

는 “人蔘, 補氣生血, 助精養神之藥也. 固真氣? 弱, 短促氣虛, 以此補之, 如營衛空虛, 用之可治也. 健忘恍惚, 二次寧之, 元神不足, 虛瀛乏力, 二次培之, 如中氣? 陷, 用之可升也. 又若汗下過多, 精液失守, 用之可以生津而止渴, 脾胃? 弱, 飲食感常, 或吐或嘔, 用之可以和中而建脾, 小兒痘瘡, 灰白倒陷, 用之可以起痘而行漿, 婦人產理失順, 用力過度, 用之可以益氣而達產, 若久病元虛, 六脈空大者, 吐血過多, 面色萎白者, 痢日久, 精神萎純者, 中熱傷暑, 汗竭神疲者, 血崩潰亂, 身汗脈微者, 內傷傷寒, 邪實心虛者, 風虛眼黑, 旋暈卒徒者, 皆可用也”이라 하였다. 張景岳의 『本草正』에서는 “人蔘, 氣虛血虛俱能補, 陽氣虛竭者, 此能回之于無何有之鄉, 陰血崩潰者, 此能障之于已決裂之後, 惟其氣壯而不幸, 所以能固氣, 惟其味甘而純正, 所以能補血.”, “而血分之所以不可缺者, 而未

損其肺者益其氣, 須用人蔘以益至. 肺氣既旺, 余臟之氣皆旺矣. 所以人蔘之性多主于氣, 而丹臟腑之有氣者, 皆能補之.”

이 時期에 人蔘은 임상 각과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었으며, 人蔘을 사용한 새로운 방제들이 많이 나타났다. 『證治準繩? 女科』의 溫中散은 人蔘, 白朮, 當歸, 草豆?, 乾薑 각 30g, 製厚朴 45g을 粗末하여 한 번에 15g을 水煎服하는데, 產後吐瀉不止를 치료한다. 이 처방은 仲景의 理中丸의 변방이다.

明代의 醫家 張介賓은 溫補를善用하였는데, 人蔘의 응용에 있어 새로운 수준에 이르러 人蔘을 위주로 유명한 처방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 獨蔘湯의 응용에 있어서도 새롭고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景岳全書? 古方八陣』의 獨蔘湯은 人蔘 60g을 水煎하여 頓服하는데, 이미 “諸氣虛, 氣脫, ……丹諸虛病垂危者”를 치료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葛氏의 『十藥

神書』의 獨參湯이 단지 失血後에 사용한 것에 비교하여 “以此藥補之”라 하여 固脫과 挽救垂危하는 데 사용하였으니 이는 크게 진전된 것이다. 景岳은 또한 人蔘과 仲景의 四逆湯을 배합하여 四味回陽飲을 만들었는데, 人蔘을重用하여 30~60g을 사용하고 制附子, 薑 各 6~9g, 炙甘草 3~6g을 配伍하여 水煎服하는 것으로 元陽虛脫, 惡寒肢冷, 氣息微弱, 冷汗如油 등을 치료한다. 또 學元煎은 人蔘 6g, 炙黃 15g, 炒白朮 9g, 炒升麻, 炙甘草 各 6g을 水煎服하는 데, 升陽舉陷하는 효능으로 氣虛下陷, 血崩血脫, 亡陽垂危病을 치료한다. 또 胎元飲은 人蔘 6g, 當歸, 杜仲, 芍藥 各 9g, 熟地黃 12g, 白朮 6g, 炙甘草, 陳皮 各 3g(無滯者不用)을 水煎하여 食遠服하거나 격일 또는 2~3일에 한 번씩 복용한다. 補氣, 養血, 固胎의 효능이 있어 婦人氣虛 胎元不固 등을 치료한다. 이러한 처방들에서의 人蔘은 그 補氣固脫하는 효능 외에 元氣大虛와 각종 氣虛의 증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였다.

(7) 清代

人蔘의 응용은 明代와 비교하면 크게 뒤진다. 그 원인은 첫째, 黨參의 출현 후에 일반적인 氣虛의 輕症에는 黨參을 代用하였고, 둘째 人蔘으로 誤補하면 殺人하거나 誤用하면 病情이 더욱 심하여지므로 가버이 쓰지 않게 되었다. 張 的 『本草逢原』에서는 “從仲景至今, 明賢方西, 無不用人蔘, 下位今日醫家屏 不用.

殊不知誤用人蔘殺人者, 皆是與 黃 芩 白朮 乾薑 當歸 肉桂 附子 同行溫補之誤所致, 不與羌 獨 柴 前 芎 半 等 同行汗和之法所致也. 又痘疹不宜經用人蔘者, 青乾黑陷, 血熱毒盛也. 若氣虛頂陷, 色白, 皮薄, 泄瀉, 漿清, 必用也”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새로운 방제들이 많이 나왔다. 陳士鐸의 『醫證錄』의 去來湯은 人蔘, 茯苓, 蒼朮 各 9g, 白朮 15g, 川烏, 甘草 各 6g, 半夏 3g을 水煎服하는 것으로 氣虛하고 微感寒濕之邪하여 邪沖心包, 心痛忽作忽止, 一日十數遍, 飲食無碍, 夜不安 등을 치료한다. 이는 仲景의 『金匱要略』의 人蔘湯으로 胸痺를 치료하는 것을 본받아 人蔘湯을 가감한 藥方이다.

또한 程鍾 的 『醫學心悟』의 安神定志丸은 人蔘, 茯苓, 茯神, 遠志 各 30g, 石菖蒲, 龍齒 各 15g을 가루내고, 煉蜜로 梧子大의 丸을 만들고 朱砂가루로 爲衣하여 한 번에 9g을 복용하는데, 驚恐不安, 睡臥不寧, 夢中驚跳 등을 치료한다.

『傳青主女科』의 固氣湯은 人蔘 30g, 炒白朮, 熟地黃 各 15g, 酒當歸, 杜仲炭 各 9g, 茯苓, 山茱萸 各 6g, 甘草, 遠志 各 3g, 炒五味子 10粒을 水煎服하는데, 少婦懷孕三月을 治遼하며 行房不慎으로 血崩胎墮에 이른 것을 치료하고 아울러 氣虛崩漏를 치료한다. 方中에 人蔘은 益元氣, 固胎止崩한다. 또 이 책에서 補氣升陽湯은 人蔘, 黃 芩, 當歸(酒洗) 各 30g, 炒白朮 15g, 川芎(酒洗), 升麻 各 6g을 水煎服하는데 產婦胎肛

을 치료한다.

『醫學衷中參西錄』의 參麥湯은 人蔘, 白芍, 炒牛蒡子 各 9g, 麥門冬 12g, 山藥 18g, 情半夏, 炒蘇子 各 6g, 甘草 5g을 水煎服하는데, 陰分? 損이 오래되고 肺虛有痰, 咳嗽勞喘, 或兼勞? 者를 치료한다.

이와 같이 人蔘의 응용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 효능이 추가되었으며, 宋代 이전에는 주로 生津止渴이나 益氣補虛하는 데 사용되었고, 金元 이후로는 大補元氣, 固脫하는 데 쓰이기 시작하였다. 한국 한의 학도 역시 이러한 흐름 안에서 人蔘의 효능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中의학과는 확연히 틀린 것으로 한국 한의학에서는 체질개념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인 근간이 되고 있는 사상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약재를 분류하고 있다. 특히 人蔘은 溫熱하므로 少陽人에게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中의학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이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李濟馬가 이러한 인식, 즉 熱이 많은 少陽人에게 人蔘이 적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중국의 청나라에서도 역시 人蔘의 吐血 등의 부작용으로 黨參의 응용이 매우 많아진 것은 매우 유의할 바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黨參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人蔘의 효능을 폄하할 수는 없다. 黨參의 가격이 저렴하고 人蔘이 상대적으로 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간과할 수 없다. ●